

「중국도시정보 26」*

메가시티시대를 준비하는 광둥성의 경제현황

작 성 | 고려대학교 글로벌학부
노수연 (syno40@gmail.com)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
2. 광둥성의 경제발전현황
3. 광둥 · 홍콩 · 마카오 경제권 구상
4. 평가와 시사점

* 인차이나브리프에서는 중국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전략에 주목, 각 지역의 주요 거점도시 및 도시권의 발전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중국도시정보> 시리즈를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광둥성은 1978년 중국 개혁개방의 첨병으로서 30년 이상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지역 중 하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이어 2018년 미중 통상마찰에 이르는 중국 국내외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광둥성의 경제발전 현황과 주요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중국경제의 향방을 예측하는데도 유의미한 작업
- 본 보고서는 광둥성의 경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중국 정부의 관련 계획 발표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메가시티 전략인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계획을 광둥성의 차원에서 고찰

1. 연구의 필요성

■ 광둥성은 중국의 개방형 경제성장의 축소판

- 광둥성은 1978년 이래 현재까지 중국 개혁개방의 최대 수혜자이자 첨병으로서의 구실을 해 왔음
 - 대표적인 대외개방조치로서 1979년 지정된 4대 경제특구 중 3곳이 광둥성에 소재한 선전(深圳), 산터우(汕头), 주하이(珠海)임
 - 홍콩에 인접한 지리적 강점을 살려 1990년대부터 대표적인 수출가공기지로 성장했음
- 특히 광둥성의 주장삼각주는 창장삼각주, 환보하이와 함께 중국경제를 견인하는 3대 축의 하나이며,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향후에도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 광저우, 선전, 둥관, 포산 등 주장삼각주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특히 전자산업의 공급사슬망을 완비함
 - 중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추진 중인 제조업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의 실험무대이기도 함

- 2015년 광둥자유무역시험구 출범과 2019년 광둥성·홍콩·마카오경제권의 통합구상 공식화를 계기로 광둥성이 홍콩을 대체할 중국의 제조·물류·금융 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이어 2018년 미중 통상마찰에 이르는 중국 국내외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광둥성의 경제발전 현황과 주요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중국경제의 향방을 예측하는데도 유의미한 작업임

2. 광둥성의 경제발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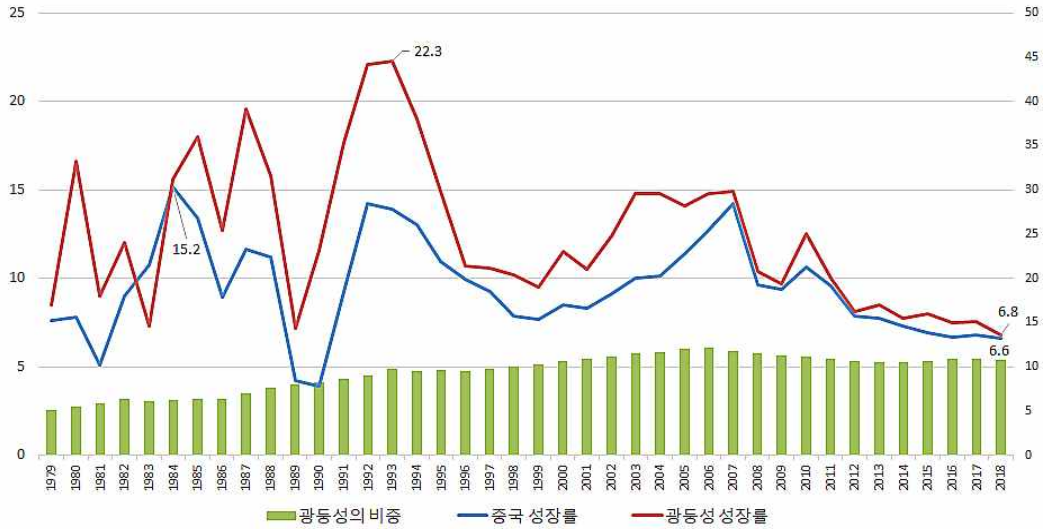
1) 주요 성과

■ 경제의 양적 성장

- 광둥성은 중국 제1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명실공히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옴
- 지역총생산(GRDP)은 1978년 186억 위안에서 2018년 9조 7,300억 위안으로 연평균 12.5%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1989년 이래 30년간 중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위인 장쑤성과의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임

그림 1 | 중국경제에서 광둥성의 비중 및 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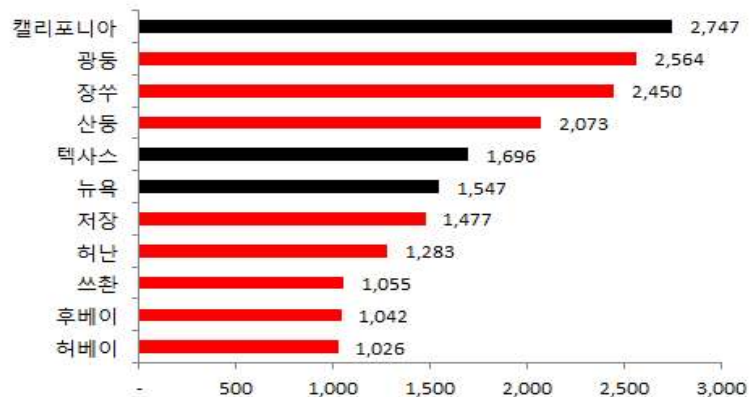
(단위: %)



출처: 国家统计局, 「中国统计年鉴」 각 연도 그림수정

- 2017년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기준으로 산출한 중국과 미국의 각 지역 지역총생산이 1조 달러 이상인 지역 중 광둥성이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여주어 세계적으로도 비중 있는 지역이 되고 있음

그림 2 | 중국과 미국의 주요지역 지역총생산 비교(2017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8-22/china-s-rising-regions-challenge-n-y-texas-for-economic-power> 그림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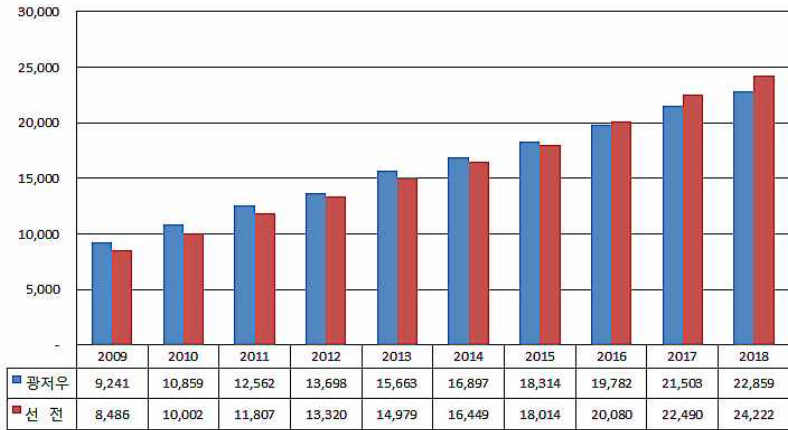
- 2018년 GRDP 성장률은 6.8%로 동부연해지역 10개 성급 행정구역 중 푸젠(8.3%), 저장(7.1%)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성장을 유지했으며 이는 중국 평균 성장률(6.6%)보다 높은 수치임¹⁾
- 지방 일반 공공예산수입은 1978년 41억 8천만 위안에서 2018년 1조 2,100억 위안으로 증가해 중국 최초로 1조 위안을 넘는 지역이 되었음
- 대외무역액은 1978년 15억 9천만 달러에서 2018년 1조 달러로 증가해 전국 무역액의 25%를 차지함
- 매출 규모가 글로벌 수준이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도 늘어나고 있음
 - 2018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20개가 중국기업이며, 이 중 광둥성 소재 기업이 12곳을 차지함
 - 중국평안보험(中国平安保險)(29위), 화웨이(华为)(72위), 中国南方电网(110위), 정웨이국제그룹(正威国际集团)(111위), 광저우자동차공업그룹(广州汽车工业集团)(202위), 초상은행(招商银行)(213위), 헝다(恒大)(230위), 메이디(美的)(323위), 완커(万科)(332위), 비꾸이웬(碧桂园)(353위), 텐센트(腾讯)(331위), 세다홀딩스(雪松控股)(361위) 등 금융, 부동산, 제조업을 망라해 순위에 오름

■ 선전시의 성장

- 선전시는 1979년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개혁개방을 대표하는 계획 도시로 꾸준히 성장해 왔음
- 선전시는 2016년부터 광둥성 정부 소재지인 광저우시를 제치고 경제 규모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그림 3), 2018년에도 7.6%의 고성장을 기록했음²⁾

1) 广东省人民政府(2019)

그림 3 | 광저우와 선전의 지역총생산 비교(2009-2018년) (단위: 억 위안)



출처: 广东省统计局(2018); 深圳市统计局(2019); 金羊网(2019-01-30)의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재정리

- 2018년에는 지역총생산(GRDP)이 2조 4,222억 위안에 달해 홍콩의 2조 4,001억 위안을 처음으로 앞서면서 아시아에서 도쿄, 서울, 상하이, 베이징에 이은 경제 규모 5대 도시로 부상했음
- 선전시와 홍콩으로 연결되는 기술 클러스터가 Global Innovation Index 2018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IT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광둥과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기업인 화웨이, 텐센트, DJI, 비야디(BYD), 중싱(ZTE) 등이 모두 선전 소재 회사임
 - 2017년 12월 성 정부는 2030년까지 광둥-둥관-선전을 잇는 중국형 실리콘밸리 건설을 목표로 하는 「광저우-선전 과학기술혁신회랑 계획(广深科技创新走廊规划)」을 발표함
- 또한 2018년 1인당 GRDP는 19만 3천 위안으로 상하이, 베이징보다 많아 질적 성장 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임³⁾

2) 참고로 광저우시의 2018년 지역총생산 성장률은 6.2%임. 출처: 深圳市统计局(2019)

3) “中, ‘개혁개방의 산실’ 선전, 경제규모 홍콩 넘어섰다”, 서울경제, 2019-02-27.

2) 문제점

■ 선전 등 도시로의 쏠림으로 인해 역내 불균형 발전 여전

- 광둥성은 개혁개방 이래 지리적으로 대외무역에 유리한 주장삼각주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중국정부도 2008년 「주장삼각주지역 개혁발전계획(珠江三角洲地区改革发展规划纲要)(2008~2020년)」을 공포하는 등 주장삼각주지역 발전을 국가급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였음
- 그 결과 21개 지급(地级)시 가운데 광저우, 선전, 둥관, 후이저우 등 주요 경제도시가 분포한 주장삼각주 지역으로 경제발전이 치중되었으며 이러한 쏠림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광둥성 지역총생산(GRDP)에서 주장삼각주의 비중은 2009년 79.4%에서 2017년 80.1%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고, 도시화율은 주장삼각주가 2017년 85.3%에 달하는 데 반해 서측지역(西翼)과 산악지역(山区)은 각각 43.5%와 48.6%에 그쳐 중국 평균인 58.5%에도 미치지 못함
 - 주장삼각주지역 대비 1인당 GRDP 수준은 2009년 세계 권역 모두 30% 미만이었고, 2017년에도 동측지역(东翼)과 산악지역은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여 역내 불균형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 이에 광둥성 정부는 역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7년 「광둥성 연해경제벨트 종합발전계획(广东省沿海经济带综合发展规划)(2017~2030년)」을 발표하는 등 주장삼각주지역 발전을 인근 지역으로까지 파급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표 11 광둥성 4대 권역의 비중 변화

연도 권역	2009년					2017년				
	지역총생산		1인당 GRDP		도시 화율 (%)	지역총생산 (2018년)		1인당 GRDP		도시 화율 (%)
	규모 (억 위안)	비중 (%)	규모 (위안)	주삼각 대비 (%)		규모 (억 위안)	비중 (%)	규모 (위안)	주삼각 대비 (%)	
주장삼각주	32,147.0	79.4	67,321	100.0	79.9	81,048.5	80.2	124,564	100.0	85.3
동측	2,722.2	6.7	16,687	24.8	61.2	6,652.1	6.6	35,844	28.8	60.1
서측	2,915.2	7.2	18,819	28.0	39.5	7,450.9	7.4	43,922	35.3	43.5
신익지역	2,709.6	6.7	16,672	24.8	44.1	5,874.5	5.8	33,039	26.5	48.6

주: ①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는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포산(佛山), 장먼(江门), 둥관(东莞), 중산(中山), 후이저우(惠州), 자오칭(肇庆)의 9개 도시, ▲동측지역(东翼)은 산터우(汕头), 산웨이(汕尾), 차오저우(潮州), 지에양(揭阳)의 4개 도시, ▲서측지역(西翼)은 잔장(湛江), 마오밍(茂名), 양장(阳江)의 3개 도시, ▲산악지역(山区)은 사오관(韶关), 허위안(河源), 메이저우(梅州), 칭위안(清远), 윈푸(云浮)의 4개 도시임.

② 2017년 지역총생산은 2018년 값임.

출처: 广东省统计局(2018); 广东省统计局(2019) 표 수정

■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구조 고도화가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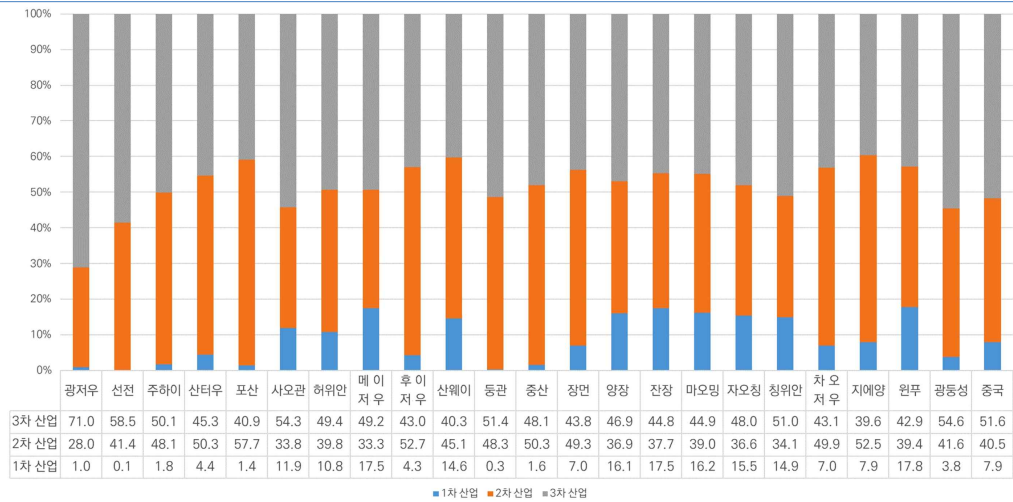
- 2017년 광둥성 지역총생산에서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3.8 : 41.6 : 54.6으로 중국 평균인 7.9 : 40.5 : 51.6보다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매우 큼
- 광저우나 선전의 3차 산업 비중이 각각 71.0%와 58.5%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과 달리, 포산(57.7%), 후이저우(52.7%), 지에양(52.5%) 등은 2차 산업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해 중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2차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
 - 포산시의 경우 가전, 도자기, 방직, 의류, 가구 등 전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함.⁴⁾ 이에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2015년 중

4) “新旧动能转换助力制造业高质量发展——佛山国家制造业转型升级综合改革试点经验之二”, 国宏高端智库, 2018-12-17.

국에서 유일하게 ‘국가 제조업 전환 업그레이드 종합개혁 시범도시 (制造业转型升级综合改革试点)’로 지정되기도 함

- 또한 원푸, 메이저우, 잔장 등 1차산업의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도 10개나 되어 산업구조 고도화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그림 2 | 2017년 광둥성 지역별 지역총생산의 산업별 비중 (단위: %)



출처: 国家统计局(2018); 广东省统计局(2018) 그림 수정

-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생산설비과잉, 환경오염 문제 등도 심각하여 2016년 성급 정부 중 가장 먼저 공급측 구조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공포한 바 있음
- 아울러 제조업 원가인하(「광둥성 제조업 원가절감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지원 정책 조치(广东省降低制造业成本支持实体经济发展若干政策措施)」),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광둥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13차 5개년” 계획(广东省战略性新兴产业发展“十三五”规划)」), 전통산업의 고도화(「광둥성 전통우위산업의 고도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广东省工业优势传统产业转型升级“十三五”规划

(2016-2020年))」),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산업 지정(「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의 광둥성 우선발전산업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통지문(广东省发展改革委关于进一步明确我省优先发展产业的通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공업정보화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산업발전과 이전 지도목록(产业发展与转移指导目录)」 2018년 개정판에서 동부 10개 성급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주요경제구역 34개 중 5개가 광둥성에 위치해 최다를 기록하였음
 - 여기에는 ① 주장(珠江) 동부 연안 첨단 IT 제조업 벨트, ② 서부 연안 선진장비제조업벨트, ③ 연해 석유화학공업 및 신소재 제조업벨트, ④ 환(環)주장 선진 경공업 및 바이오의약산업 클러스터 ⑤ 광둥성 동-서-북부가 주장삼각주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관련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포함됨
- 광둥성 서부지역은 원자재, 기초설비제조 산업을 집중시키고, 동부지역은 전자정보산업 관련산업 및 대형기계제조업과 금속제품, 경공업, 도자기, 방직업 등을 발전시킬. 북부지역은 장비제조, 전자정보 관련 산업기지를 조성하고 현지 자원과 환경우위를 살려 특화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임

■ 외부환경변화 리스크에 취약한 무역구조

- 양대 수출대상 지역/국가인 홍콩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2017년 광둥성 전체 수출의 44.2%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음
 - 개혁개방 이후 광둥성은 홍콩을 대외무역 창구로 활용하고 주장삼각주지역이 임가공 기지를 담당하는 이른바 ‘전점후창(前店後廠)’의 발전모델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무역 및 유통업이 타 지역에 비해 발달하지 않음

- 광둥성의 2017년 대외수출에서 미국이 7,320.7억 위안으로 광둥성 전체 수출의 7.3%를 차지했으며, 이는 홍콩(11,348.2억 위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특히 미중 통상마찰이 발생하면서 광둥성의 대미 수출도 영향을 받음
 - 미국의 집중제재를 받고 있는 통신설비업체인 화웨이, 중싱(ZTE) 등은 모두 광둥성 기업이며, 이들은 미국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음
- 광둥성의 주요수출품목인 전기기계는 대미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대미 수출품목 중 전기기기, 휴대폰, 컴퓨터, 의류, 완구, 신발 등의 산지가 대부분 광둥성 주장삼각주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그 결과 2018년 상반기 광둥성의 수출이 동기대비 3.3% 하락하기도 함
 - 일례로 2018년 광둥성의 5천여 개 신발업체 중 1/3이 원자재 가격 인상 및 해외주문 감소로 인해 생산량을 줄였음⁵⁾

3. 광둥 · 홍콩 · 마카오 경제권 구상

- 중국정부는 2019년 2월 광둥 · 홍콩 · 마카오 대만구(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이하 GBA) 발전계획인 「광둥 · 홍콩 · 마카오 대만구 발전계획 요약(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을 발표함
 - 광둥 · 홍콩 · 마카오 경제권 건설의 근간이 되는 이 「발전계획」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배경과 기본목표, 공간구성과 함께 국제적인 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산업체계의 개편 등을 명시하고 있음

5) 深圳特区报(2018. 9. 18). 中美贸易摩擦背景下广东急需构建高水平贸易体系. C01.

1)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 개요

- GBA는 광둥성 주장삼각주에 위치한 9개 주요 도시⁶⁾와 홍콩과 마카오를 연결하는 거대경제권으로서 경제 규모는 캐나다에 필적하며, 도쿄만 지역의 3배 이상임⁷⁾

표 2 | 2017년 GBA의 11개 도시 경제 비교

도시	인구 (백만 명)	면적 (km)	지역총생산(10억 달러)		1인당 GRDP(달러)
				GBA에서 차지하는 비중(%)	
홍콩	7.41	1,106	341.41	22.56	46,190
마카오	0.65	31	50.36	3.33	77,600
선전	12.53	1,997	331.99	21.94	27,120
광저우	14.50	7,249	318.15	21.02	22,320
포산	7.66	3,798	141.29	9.34	18,450
둥관	8.34	2,460	112.18	7.41	13,530
후이저우	4.78	11,347	56.68	3.75	11,880
중산	3.26	1,784	51.05	3.37	15,750
장먼	4.56	9,505	39.80	2.63	8,740
주하이	1.77	1,736	37.95	2.51	22,100
자오칭	4.12	14,891	32.56	2.15	7,940

출처: https://hongkong.ahk.de/news/news-details/?tx_news_pi1%5Bnews%5D=15692&cHash=070ffedab9fafccd703ab4e03f5da15f 표 수정

- 시진핑 정부의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며, 11개 도시를 긴밀하게 연결해 세계 시장과의 통로를 개선하고 첨단 IT 분야를 집중 발전시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과 경합을 벌이고자 함⁸⁾

6) 선전(深圳), 광저우(广州), 주하이(珠海), 둥잉(东莞), 포산(佛山), 후이저우(惠州), 중산(中山), 장먼(江门), 자오칭(肇庆)

7) “Greater Bay Area: Prospects and challenges”, China.org.cn. 2019-02-27.

8) “Bay Watch - The Greater Bay Area Initiative and its implications for Hong Kong”, German Industry and Commerce Ltd. 2018. 2018-09-18.

- GBA는 중국 면적의 1%에도 못 미치고, 인구도 5% 정도지만, GDP의 13%, 수출량의 25%, 외국인 투자의 20%를 차지하는 핵심지역임. 또한 지난 10년간 평균 1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함⁹⁾
- Hong Kong-Zhuhai-Macau Bridge(HZMB)와 Guangzhou-Shenzhen-Hong Kong Express Rail Link(XRL)를 중심으로 한 교통인프라 구축은 이들 지역의 교류와 통합에 도움이 될 것임. 대교와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GBA는 ‘1시간 생활권’이 되었고 이는 통합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적인 것임¹⁰⁾

2) 주요 내용

■ 주요 목표

- 단기 목표는 2022년, 장기목표는 2035년으로 잡고 있음
 - 2022년까지 GBA의 종합경쟁력을 향상하고 3자간 폭넓은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일류의 도시군을 형성할 계획임
 - 2035년까지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체제와 발전모델을 완성하고 GBA 역내 시장의 상호연계에서 나아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 국제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 광저우-선전-홍콩-마카오를 잇는 과학기술혁신회랑을 건설하고 인력, 자본, 정보, 기술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며, GBA 빅데이터 센터와 국제혁신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9) 주홍콩총영사관(2017)

10) “Greater Bay Area: Prospects and challenges”, China.org.cn. 2019-02-27.

- 홍콩-선전 혁신과학기술단지, 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 도시, 난사 청성(庆盛)과학기술혁신산업기지, 형친(横琴) 광둥-마카오 협력 중의 약 과학기술산업단지 등을 혁신의 매체로 육성함
- 또한 역내 원활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GBA 역내 출입국과 업무, 거주, 물류 등의 편의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및 학술인력의 교류를 적극 장려함

■ 도시별 주요 역할

- GBA의 4대 핵심도시는 홍콩, 마카오, 광저우, 선전이며 각각의 포지션이 다름¹¹⁾
- 홍콩은 국제적인 금융, 운송, 무역의 중심이자 항공 허브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면서 금융, 비즈니스, 물류, 전문서비스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면서 혁신 및 과학기술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 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센터 건설
- 마카오는 세계적인 관광·레저 중심이자 중국과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예. 포르투갈, 브라질, 앙골라)와의 비즈니스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
- 광저우는 중국의 중심도시로서 국제 비즈니스와 종합교통 허브, 과학기술-교육-문화의 중심 기능을 강화
- 선전은 경제특구이자 경제중심도시, 국가급 혁신도시의 선도역할을 강화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혁신도시로 발전

11) 中共中央·国务院(2019)

- 지역적으로는 홍콩-선전, 광저우-포산, 마카오-주하이 간의 연합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의 협력은 주로 선전 첸하이(前海), 광저우의 난사(南沙), 주하이의 형친(橫琴)에 기(既)조성된 협력시범구를 활용함. 이들 지역은 2014년 12월 광둥성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함

4. 평가와 시사점

- GBA 구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 보호주의, 중국-홍콩-마카오 정부 간 단절, 정부계획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함¹²⁾
 -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일국양제' 제도로 인해 여전히 자신의 화폐, 세율, 여권, 법 제도를 유지 중이며, 인적교류나 주민의 권리 등에서 정치적 이슈가 여전히 많이 있음
- 광둥성 입장에서는 GBA를 통해 홍콩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이는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가 확대되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음. 또한 주하이, 장먼과 같이 자원과 숙련공이 풍부한 도시의 경우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그러나 광둥성의 고질적인 과제인 역내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 해결에 홍콩, 마카오와의 통합발전이 중단기적으로는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임
 - 특히 2019년 GBA 구상에서도 나타나듯이 홍콩, 마카오와의 협력에서 여전히 선전과 광저우가 중심이 되고 있음

12) "Bay Watch - The Greater Bay Area Initiative and its implications for Hong Kong", German Industry and Commerce Ltd. 2018. 2018-09-18.

- 광둥성에서 진행되는 각종 발전모델이 향후 중국의 발전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현재 인접 지역을 묶은 도시군 형태에서 초광역적인 메가 시티로 발전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GBA의 협력은 중국이 직면할 각종 난제를 해결하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또한 선전으로 대표되는 ‘혁신형 발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타 지역으로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유사 모델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연계해 복제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국경제 발전의 관건이 될 수도 있음

참고자료

주홍콩총영사관(2017), 「웨강아오 대만구 정책과 시사점」.

广东省统计局(2018), 「广东统计年鉴2018年」.

_____ (2019), 「2018年广东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广东省人民政府(2019), 「2018年政府工作报告」.

中共中央·国务院(2019), 「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

深圳市统计局 (2019), 「2018年深圳经济运行情况」.

国家统计局, 「中国统计年鉴」 각 연도.

“中, ‘개혁개방의 산실’ 선전, 경제규모 홍콩 넘어섰다”, 서울경제, 2019-02-27.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H6V7R86/GF02>(검색일: 2019-03-05).

“中美贸易摩擦背景下广东急需构建高水平贸易体系”, 深圳特区报, 2018-09-18, http://www.szilun.com/content/2018-09/18/content_21087994.htm(검색일: 2019-03-02).

“新旧动能转换助力制造业高质量发展——佛山国家制造业转型升级综合改革试点经验之二”, 国宏高端智库, 2018-12-17, http://www.sohu.com/a/282500050_692693(검색일: 2019-01-04).

“广州市统计局: 2018年广州经济结构持续优化, 新动能加快释放”, 金羊网, 2019-01-30, http://money.ycwb.com/2019-01/30/content_30189074.htm(검색일: 2019-03-01).

“China’s Rising Regions Challenge New York, Texas for Economic Power”, Bloomberg, 2018-08-2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8-22/china-s-rising-regions-challenge-n-y-texas-for-economic-power>(검색일: 2019-03-03).

“Bay Watch - The Greater Bay Area Initiative and its implications for Hong Kong”, German Industry and Commerce Ltd. 2018. 2018-09-18, https://hongkong.ahk.de/news/news-details/?tx_news_pi1%5Bnews%5D=15692&cHash=070ffedab9fafccd703ab4e03f5da15f(검색일: 2019-03-08).

“Greater Bay Area: Prospects and challenges”, China.org.cn. 2019-02-27, http://www.china.org.cn/opinion/2019-02/27/content_74506651.htm(검색일: 2019-03-08).